

5월의 테스

「영국의 5월」이라는 말이 있다. 그런 말이 있는 만큼 영국의 5월은 딴 어느 나라의 5월보다도 아름답다고 한다. 이 「영국의 5월」에 대한 찬미와 묘사를 우리는 영국의 「시가의 아버지」인 초오서 이래로 영국문학 작품 속에서 무수히 찾을 수가 있다. 이에 나는 토머스 하디 작 <더버필가의 테스>중에서 「영국의 5월」의 한 장면을 초역(抄譯)하여 보려고 한다. 그런데 이에 앞서서 독자의 이해를 위하여 자연과 하디의 작품과의 관계와 여기 초역하는 장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 둘 필요가 있을 줄 안다.

하디의 작품에 있어서는 자연은 단지 배경으로서 묘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대우주의 운명력과 함께 인간생활을 규정하는 결정력으로 서 활현(活現)되어 있다. 그리하여 하디의 작품 속의 자연은 다분히 주관성을 띤 산 자연으로 인간생활과 불가분리적 관련을 맺고 있다. 이것은 이하의 짙막한 장면으로도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의 장면은 테스가 알레크에게 능욕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낳았다가 그것까지 잃고, 한때 완전한 절망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새로운 생활의 힘을 얻어 이웃 지방에 있는 목장으로 고용살이를 살려 산길을 넘어 가는 장면이다.

「녹향초가 향그럽고 새가 알을 까는 5월 어느 날 아침에 공기가 무거운 곳에서 가벼운 곳으로 올라온 때문인지, 혹은 불쾌한 눈으로 자기를 보는 사람이 전연 없는 탄 지방으로 온 때문인지 모르나, 테스는 이상하게도 새 기운이 났다. 보드라운 남풍을 얼굴로 받으면서 사뿐사뿐 걸어가는 테스의 은땀을 희망이 햇빛과 어울리어 이상의 빛나는 구슬이 되어 둘러쌌다. 솔솔 바람이 불 때마다 즐거운 소리가 들리는 듯하였고, 새들이 지저귌 때마다 그 속에 기쁨이 숨어 있는 듯하였다.

요사이 테스의 얼굴은 마음의 변화에 따라 달라졌다. 쾌활해지거나 침울해지거나 함에 따라 어여뻐지기도 하고 평범해지기도 했다. 장미색으로 활짝 피어 다시없이 아름다운 날도 있고, 창백하도록 침통한 빛을 띠는 날도 있었다. 장미색으로 빛나는 때는 창백한 얼굴을 한 때보다 감정의 움직임이 적은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감정이 흥분해 있지 않으면 앓은 만큼 완전한 미를 발휘하고, 감정이 긴장하면 하는 만큼 그 미가 감소되는 것이었다. 지금 남풍을 바로 받고 있는 테스의 얼굴은 생리적으로 가장 아름다웠다. (略)

이리하여 테스의 기운과 감사의 마음과 희망은 점점 높아갔다. 테스는 몇 가지 노래를 콧속으로 불러 보았으나 어느 것이나 지금 그의 마음을 흠뻑 적혀주지 못했다. 그러다 테스가 아직 지혜의 과실을 먹기 전에 주일 아침으로 읽고 하던 시편의 한 구절이 생각나서 그것을 노래했다.

「오오 너희들 해와 달아…… 오오 너희들 별아…… 너희들 땅 위의 푸른 초목들아…… 너희들 공중을 나르는 새야. 들의 짐승과 가족아…… 사람의 아들아. 너희들아. 하느님을 축복하라, 하느님을 찬송하라. 몇 대(代)고 변함없이 하느님을 숭양하라.」

한때 테스를 잔혹하게도 압도하고 있던 저 불행한 경험을 맞본 후에 테스의 나이로는 당연한 정력과 어머니의 혈통에서 받은 활력이 다시 불타오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로 말하면 여자란 대개 그러한 굴욕을 뚫고 나와 원기를 회복하여 다시 흥미에 찬 눈을 가지고 주위를 돌아보는 것이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다는 말은 낙천가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려고 하여도 쉽사리 믿어지지 않는 것이나 「배반당한 사람」에게 제법 알려진 이론이다.

테스는 생에 대한 용기와 흥미를 한아름 안고 에그돈의 산비탈을 내려 목적지인 목장이 있는 곳을 향하여 걸어갔다.

테스가 살던 블랙모어 산골과 이곳 산골의 차이가 이제 그 최후의 특징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블랙모어의 비밀을 발견하려면 그 주위의 고지로부터 조망하는 것이 가장 좋았으나, 지금 테스의 눈앞에 전개된 산골을 제대로 완상하려면 아무래도 그 한가운데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테스가 이 목적으로 그 산비탈을 다 내려갔을 때 테스는 멀리 시선이 끝나는 데까지 동, 서로 열려 있는 카페트 퍼놓은 것 같은 들 가운데 서 있었다. 시내는 고원지대로부터 이곳 일대의 평탄한 토사를 조금씩 빼앗아서 이 골짜기로 운반한 것이었다. 그 시내도 지금은 쇠약하여 노경에 들어가 세류가 되어 꿈틀거리며 흘러가고 있었다.

테스는 도무지 방향을 알 수가 없어 마치 무한히 긴 빌리언대(崖) 위에 앉은 한 마리 파리 모양으로 산에 둘러싸인 넓디넓은 들 위에 혼자 외톨이같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파리와 같이 테스가 있다는 사실은 주위에 대하여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았다. 테스가 와서 이 산골에 준다면 하나인 영향은 테스가 있는 곳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목을 하늘로 쭉 뽑아가고 그를 바라다보고 있는 한 마리 청로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뿐이었다.

갑자기 이 산골짜기의 이곳 저곳에서 길게 목청을 뻗 「위이! 위이! 위
워」 하는 소리가 일어났다.

이 소리는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전염하는 것처럼 퍼졌다. 때로는
개짚는 소리까지도 섞이어 들리었다. 그것은 이 산골에 아름다운 테스
가 온 것을 알아차리고 짚는 소리가 아니라 젓짜는 시간을—젓짜는 아
이들이 소를 몰아 넣기 시작하는 4시 반을—알리는 소리였다.

이 군호를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있던 가까운 데 있는 흰 점이 박힌 붉
은 소의 무리는 발을 떼어놓을 때마다 큰 젓통을 배에서 흔들거리면서
외양간으로 으슬으슬 들어갔다.

테스는 천천히 그 뒤를 따라 소들이 지나가느라고 열어 젓혀놓은 문
으로부터 뜰 안으로 들어갔다.

이 목장에서 테스는 엔젤 클레아를 알았다. 그리하여 봄이 무르녹아
감에 따라 그들의 사랑도 무르녹아갔던 것이다.

(《조광》, 6권 3호, 1940. 3. 1)